

# 티모르 조르날!!

9월호

참간대 특집호!!



LoVe & Coffe House  
대 공개

아름다운 CRISTO-  
ERI 해변으로 Go Go!!

**True or Lie ;**

티모르에 가면 잘 못  
먹고 살거같다고??

'서울 → 딜리' 31사

대장정 밀착 르보

**‘벌써 찾아온 소진!?’**

그들 각자의 비밀 고백

힐링캠프: 

그들이 쓰레기를 주운 사연

4주간의 심경고백

부록 : 티모르 갤러리

# 간략하게 살펴본 동티모르의 9월



DOMINGU	SEGUNDA	TERSA	KUARTA	KINTA	SESTA	SABADU
						1
2	3 -부천에서 출국 전 캠프 송~~	4	5 -한국 안녕~~ 인천공항 출국!	6 -발리공항에서 12시간 노숙 -동티모르 도착!	7 -SAME에서 온 커피콩 나르기	8 -인터넷, 핸드 폰 모뎀 구입 -마트 3곳 구경
9 -KMANEK 마트 에서 장보기	10 -동티모르 YM CA 첫 출근 -두호 간사님 송별저녁식사	11 -떼뚱어 첫수업 -센터에 컴퓨터 설치 -두호간사님 귀국	12 -첫 시장방문	13 -쓰레기 줍기 시작	14 -Clara간사님 탄신일 기념 폭식	15 -Gloria Jean에 서 첫 Wifi -4명 가방 구매 -숙소 영화관 개관
16 -운동 시작 -영화 관람	17 -세미 프로그 램 '손 유희' -'고기 없는 월 요일' 시작	18 -김치 담그기	19 -SAME에서 커피콩 송~	20 -SAME에서 커피콩 송~ -라운아띠 프로 그램 팀 회의	21 -도서관 라벨 붙이기 작업 -사때(완전 감 동의 염소고기) 먹음	22 -해변으로 가요 ~
23 -프로그램 준비 및 홍보 회의	24 -떼뚱어 수업 끝 -프로그램 첫 진행 (음악 교실)	25 -고기 없는 '화 요일' -재량활동 진행 -홍보포스터 만들기	26 -음악 교실	27 -다해 결근 -미술 교실 진행 (대타:호진)	28 -음악 교실 - @ _ @	29 -추석 음식 만들고, 먹기 남암맘! (갈비찜, 만두, 잡채, 김치)
30 -월말 보고서 회의 -추석 기념으로 집에 전화						



# 동티모르의 좋은 친구들

## Dona (박다해)

회의 때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종종 우리를 셋길로 안내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기들을 대상으로 밤낮으로 밥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모기들에게 정말 인기가 좋다. 하지만 당하고만은 있지 않다. 하루 20여마리에 달하는 모기를 없이 사냥하고 있다. 모기에게만은 그렇게 인정사정이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가끔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 Natalia (김창숙)

Dona에 의해 셋길로 빠진 팀원들을 본래의 길로 다시 이끌어 준다. 가끔 다른 팀원들이 흥분하는 상황이 오면 상황을 진정시키기도 한다. 아침에만 피는 꽃 '모닝 글로리'. 그녀는 오후가 되고 밤이 깊어갈수록 시들시들해 진다. 현재 센터에 있는 축구부 남자 애들에게 인기가 많은 Miss Anjuctil. 하지만 재미, 재치, 위트는... 없다 정말 NAVER.





# 동티모르의 좋은 친구들

Gomez (김준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해결해준다. 우리의 주방장.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려주어 주변 사람들의 건조해진 기관지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천연 가습기이다. 한편, 아이들 공포증이 있어 센터에서 아이들과 있을 때 곤잘 패닉에 빠지곤 한다. 티모르에 와서 열심히 다이어트중이다.



Afonso (최호진)

팀원들은 개드립이라 비하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만큼 재미있고 재치만점이고, 위트 넘치는 사람은 없다(본인이 작성함). 욱하는 성질 때문에 가끔 짜증을 분출하기도 하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무한 긍정주의자이다. 특기는 사진 찍을 때 야한 표정 짓기 이다.



# 머나먼 그곳 동티모르, 30시간의 생생한 입국 이야기

티모르는 정말 너무나도 머나먼 곳이었다. 아직 잠이 덜 깬 8시 국제청소년 수련관 입구에 졸린 눈을 비비며 30명의 아띠들이 공복으로 모였다. 잠시 후 모두를 싣고 버스가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것이 동티모르로 가는 긴 여정의 시작일 줄이야. 태국팀을 시작으로 다른 라온아띠 팀들을 하나 둘 보내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오후 여섯시가 되어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밤을 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날수록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새벽 네시를 기점으로 모두가 좁은 침낭 하나에 쏘르르 누워 잠이 들어버렸다. 동이 터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지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피곤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국 환하게 동이 뜬 9시가 다 되어서야 아침을 먹고 공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일곱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도네시아 발리공항에 도착을 했지만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여행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새벽 1시가 가까워가는 발리공항은 팁을 받으려는 포터들과 호객꾼들로 북적거렸다. 우리는 그들을 뚫고 발리공항 입국장 앞에 자리를 폈다. 시각은 새벽 두 시반 고통스러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짐을 보호하기 위해 원터치 모기장을 펴고 그 안에 짐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 앞에 침낭을 펴고 네명이 쏘르르 앉았다.



발리에서 티모르로 가는 길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때마침 힐러리 클린턴의 티모르 방문 때문에 우리가 타는 비행기 까지 연착이 되고 말았다. 원래 떠나기로 했던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비행기가 떴고, 오후 세시가 되어서야 티모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따가울 정도로 환한 햇살, 후끈한 공기, 시골터미널 처럼 작고 혼잡한 공항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9월 05일

PM 6:05 발리행  
비행기 출발!!

PM 5:00  
출국장 통과!!

인천공항...  
기다림은  
언제까지?...

AM 8:00  
드림텔 출발

9월 06일

AM 0:05  
발리 도착!!

발리공항  
노숙 시작...

비행기 연착...

PM 12:15  
딜리행 비행기 탑승!

PM 02:50  
마침내 딜리 도착!

- By 김준기 (Gomez) -

# 우리의 보금자리와 티모르 공정무역 커피사업



**아피들의** 숙소는 YMCA센터에서 이곳의 교통수단인 미크롤렛을 타고 15분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교통 상황에 따라 10분~15분 정도 걸리기도 한다. 입지적 요소로 보았을 때 딜리 어느 곳을 가기에든 정말 좋은 곳이다. 사실 딜리라는 도시가 크지도 않아서 웬만한 곳은 차로 20분에서 30분이상 걸리는 곳이 없다. 아무튼 딜리에서 가장 포근한 우리 숙소는 지금 현재 우리 라온아피 네 명과 간사님 두 분 총 여섯 명이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다. 함께 생활하고 계신 기연 간사님, 예림 간사님은 라온아피 귀국단원 출신이시다. 기연 간사님은 커피사업에 참여 중 이시고 예림 간사님은 딜리YMCA센터를 담당하고 계신다. 각 방에는 침대가 있으나 남자방은 현재 침대가 남자단원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치워버리고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메 로뚜뚜지역과 YMCA딜리 센터가 이어지고 있다. 커피시즌인 지금은 수확을 마친 커피들이 방,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가공공장으로 사무실로 커피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곳에서 가공과 포장이 끝난 커피들은 조만간 한국으로 수출 될 예정이다. 이곳에 계시는 기연 간사님은 커피사업지역인 사메를 자주 오고 가시면서 커피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



**동티모르는** 사실 치안이 불안하고 불특정 외국인들을 겨냥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라온아피 단원들과 스텝들은 딜리 YMCA센터와 숙소, 장을 보러 나가는 것 외에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때론 겁잡히기도 하지만 집안에서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거리와 요리를 개발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은** 커피사업이 한창 시즌이라 여자아피들이 지내던 방과 남자아피들이 지내던 방을 창고로 쓰고 방을 옮겼다. 그리고 커피사업을 도와주시러 오신 사메, 로뚜뚜 지역의 아저씨 8분과 함께 일주일간 지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한국 스텝의 생활공간 겸 동티모르 YMCA의 사무실 공간을 겸하고 있다. 이곳을 교두보로 한국과 공정무역 커피사업지역인



- By 김준기 (Gomez)-



# Timor Leste - YMCA Anjuctil!!을 소개합니다!



**동티모르** YMCA는 수도인 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ANJUCTIL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ANJUCTIL-Association National Juvenil Christian Timor-Leste)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국제 프로그램이 있다. 지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축구, 도서관, 음악, 성경 공부, 춤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축구, 성경 공부, 컴퓨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프로그램으로는 라온아피와 대안여행(GATN) 등이 있다.

**동티모르** YMCA의 축구부는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 되어있다.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룹과 중학생, 고등학생 등과 같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있다. 그래서 한 그룹이 오전에 훈련을 받으면, 다른 한 그룹은 오후에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동티모르 YMCA 축구부는 동티모르 내 유소년, 청소년 부문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실력파 축구팀이다.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청년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최근 시작되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매달 한 번 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아동** 프로그램은 미술, 음악 등을 중심으로 방학 기간 동안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일주일에 한 번 애큐매니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YMCA 유소년 축구단과 감독 MOUN 제로

**라온아피** 프로그램으로 1기와 2기가 각각 두 팀이 동티모르 딜리와 사메 지역에 파견되었으며, 다시 파견되기 시작한 8기부터는 딜리 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GATN**은 Global Alternative Tourist Network의 줄임말로, 동티모르와 커피 등을 주제로 하는 대안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있다.

- By 박다해 (Dona), 최호진 (Afonso) -

# ANJUCTIL의 멤버를 소개합니다!



**Orasio** : 동티모르  
YMCA의 총장님.  
'Xefi(=Boss, chief)'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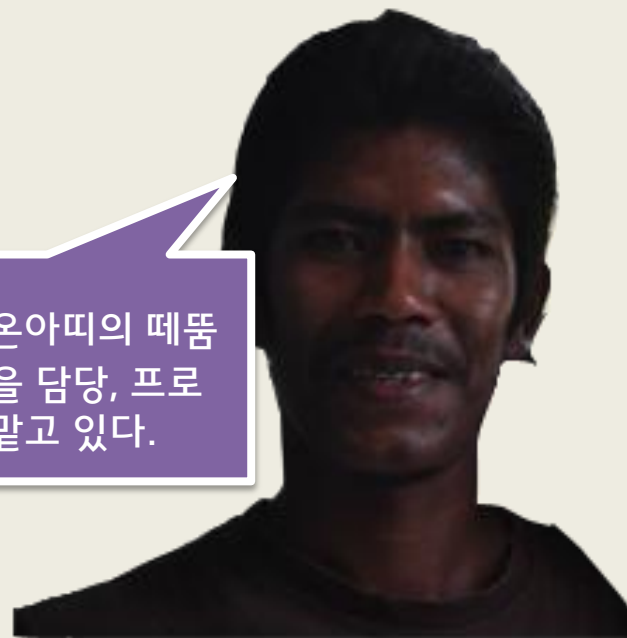


**Ana (양예림간사님)** :  
한국에서 파견되었고  
센터의 도서관과  
프로그램을 담당. 현재  
라운아피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Sepercia** :  
도서관과 아동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Ercy'라고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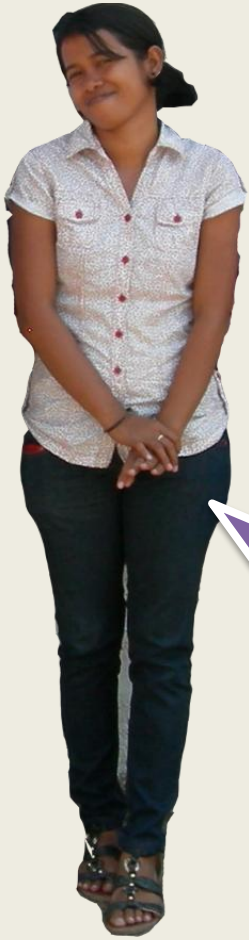


**Julio** : 라운아피의 떼똌  
어 교육을 담당, 프로  
그램을 맡고 있다.





# ANJUCTIL의 멤버를 소개합니다!



**Jeronimo** : 동티모르  
YMCA 센터장이면서,  
축구부 감독을 맡고 있다.  
'Jero'라고 불린다



**Lourdes** :  
회계와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Udis'라고  
불린다



**Fati** : 센터에서  
도서관과 아동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Jodi** : 동티모르  
YMCA에서 공정무역  
커피 총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다.



**Clara (김기연간사님)** :  
한국에서 파견되었고,  
사메(Same)지역에서  
커피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짧았던 수업, 계속되는 스스로 학습

지역NGO인턴십 기간 동안 다른 팀들은 현지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동티모르 팀은 다른 팀들과는 달리 3주 동안 현지언어를 배우지 못했다. 우리가 그나마 알고 있는 말이라고는 Bon dia(본 디아-아침인사), Bo tarde(보 따르디-점심인사), Bo noite(보 노이띠-저녁인사) 뿐이었다. 그나마 그것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것. 동티모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떼뚬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가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영어도 배운다. 이 중에 우리가 배울 말은 떼뚬어이다. 이 현지언어에는 포르투갈어와 인도네시아어가 적지 않게 섞여 있다. 학교에서는 공식언어인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학교 밖에서는 떼뚬어와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다. 한 예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어떤 아이들은 인도네시아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떼뚬어로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떼뚬어도 지역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수도인 딜리에서 쓰는 떼뚬어가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서울말과 제주 사투리 정도의 차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우리가 지낼 곳은 수도인 딜리. 따라서 수도 딜리에서 쓰는 떼뚬어를 배워야 한다.



떼뚬어 수업 선생님 Moun 줄리오

**떼뚬어** 첫 수업은 우리가 동티모르에 도착한지 닷새가 지난, 9월 11일 화요일에 있었다. 우리에게 떼뚬어를 가르쳐주실 생님은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maun\* Julio. 먼저 Julio 선생님을 소개하자면, 나이는 28살이고 현재 법을 공부하고 계신다. 살짝 수줍게 웃으시며 항상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선생님이다. 수업 장소는 동티모르 YMCA 센터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교재는 영어로 쓰여진 떼뚬어책이었고, 그렇게 총 9번의 수업이 있었다.

원래는 한 달 동안 배우기로 하였지만, 일찍 라온아 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겹쳐, 9월 24일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떼뚬어는 우리가 각자 스스로 공부하게 되었다.



떼뚬어 수업 중

**아쉽게도** 수업은 9번 만에 끝났지만, 지금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떼뚬어를 공부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필요한 떼뚬어를 미리 센터 스태프 분들이나 같이 사시는 간사님들께 여쭙보면서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 수업을 위해 준비한 떼뚬어를 다른 팀원들과 계속 공유하고 있다. 어떤 팀원은 평소에 틈틈히 스태프분들께 단어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팀원은 그렇게 배운 단어들을 수첩에 적어 놓고 짹짹 보기도 한다. 아! 한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 며칠 전에 드디어 떼뚬어-영어 사전을 장만했다! 보통 사전에 비하면 쪽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사전 덕분에 우리가 떼뚬어를 좀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모두 9번의 떼뚬어 수업과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계속 떼뚬어를 공부해 나갈 것이고 공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는 항상 선생님들이 옆에 있지 않은가? 센터에 계시는 스태프분들과 센터로 놀러오는 아이들이.

- by 최호진 (Afonso) -

\* maun : 떼뚬어로 '형, 오빠'를 뜻하는 말, 존경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앞에 붙여 부른다.



# 쓰레기 줍기는 계속된다 째욱~

첫 티모르의 인상은 뿌연 자동차 매연으로 시작 되었다. 더불어 어른, 아이들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와 분리수거 없이 소각하는 방식은 짧은 기간 우리를 환경에 대하여 고민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실천 할 수 있는 범위의 환경 지키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마침 적응기간이었던 우리 팀은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센터 앞을 청소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운 날씨에 쓰레기를 줍는 것이 조금은 어려웠지만 안전문제로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우리에게 게는 즐거운 시간이다.



쓰레기 줍기는 동티모르의 내의 상황으로 피켓이나 다양한 홍보를 통한 캠페인에 제약이 있는 우리에게 빈곤퇴치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빈곤퇴치 캠페인과 연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환경교육과 청년들과 함께하는 보건, 환경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

또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마을 주민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 또 쓰레기 줍기를 시작 2주가 지난 현재 긍정적인 변화로 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By 박다해 (Dona) -



## CRISTO-ERI BEACH 첫 여행



매일 센터 아니면 장보러 가는 아띠들에게 첫 여행, 놀러가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동티모르는 섬이기 때문에 숙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바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다에 아띠들 모두 신이 나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신나게 놀은 탓인지 준기 단원은 더위를 먹어서 좋아하는 피자도 못 먹고 잠시 쉬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제일 신나게 놀았지만 그만큼 대가를 치룬 호진, 렌즈 한쪽을 잃어 버리고 스노클링 장비도 부셔지고 안경도 바다에 떨어뜨렸다가 간신히 찾았습니다.



예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서 화려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 By 김창숙 (Natalia) -

# ATTI KLASE 드디어 시작하다!

**라온아띠** 동티모르팀이 TIMOR-LESTE YMCA 센터에서 맡은 첫번째 역할인 '아띠 클라세'. 라온아띠의 'ATTI'와 교실, 수업이라는 뜻의 페툰어 'KLASE'를 합해 'ATTI KLASE'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띠클라세 홍보!!

**처음에는** 생각보다 일찍 프로그램을 맡게 되어 당황했습니다. 페툰어 수업을 받은지 한 달도 안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과연 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까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Atti Klase 준비

**팀원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다해와 호진은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미술 표현을 주제로 'ARTE KLASE' 미술 교실을 열고, 창숙은 악보 보기와 리코더 연주를 주제로 'MUZIKA KLASE' 음악 교실을, 준기는 'LINGUA KOREIA' 한국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한국어 교실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태프들이 주민들의 수요가 있고, 한국어 교실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어 교실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 재량활동 시간을 만들어서 환경, 건강, 위생, 지구시민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같이 지냈을 때 손을 닦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

리지 않는 것과 같은 환경과 위생부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Atti klase 수업사진

**방학** 때는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의 걸음이 뜸해져서 우선 모집과 홍보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스케치북에 포스터를 그리고 홍보지를 제작해서 홍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YMCA STAFF인 MAUN ZERO, JILU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아이들에게 홍보지를 나눠 주었습니다. 사실 센터를 오가면서 주변의 마을을 가본적이 없었는데, 마을에 사는 ZERO 스태프의 도움으로 직접 마을 안까지 가 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Atti Klase 홍보

**현재** 약 2주 간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아직 어리숙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아띠들도,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답답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예쁜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되는 영어, 페툰어, 몸짓 다 동원하여 스태프들에게 번역을 부탁하고, 더듬더듬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못하는 평가의 기준을 떠나서 팀원들과 함께 도우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아이들과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목표로 앞으로 열심히 할 것 입니다.



# 힐링캠프 : 라온아띠 티모르 팀의 4주간 심경 변화

## 1주 우리의 생각

동티모르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힘들구나.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으로 현실 감각이 떨어진 느낌도 받았다. 덩기도 덩지만 정말 햇볕이 따가워서 놀라웠다.



## 2주 우리의 생각

동티모르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여러 활동적으로 움직일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집 앞 조그마한 마당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Ymca center로 첫 출근을 하였는데 우리를 반겨주는 스태프들에게 감사했다. 약간 삭막하기 한 센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 3주 우리의 생각

다음 주부터 진행될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더욱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센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차이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해보자 라는 생각!



## 4주 우리의 생각

동티모르에서 라온아띠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일까?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채로...



# 잘 못 먹는다고?? 전혀~~!!

우리가 국내훈련을 받았을 때 자주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는 동티모르 가서는 잘 못 먹으니 지금 많이 먹어두라는 말이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보기에 어떻게냐고? 우리끼리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 먹고 있다! 우리들 그리고 같이 사시는 간사님들이 같이 요리해 먹는다. 가끔씩은 가게나 노점에서 파는 음식을 사먹기는 하지만, 거의 우리가 장을 봐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 핵심 셰프는 준기 단원과 예림 간사님. 그들을 필두로 다른 사람들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가 만든 요리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추석을 맞이하여 만든 갈비찜, 만두, 잡채이다. 특히 만두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만두피, 만두소도 직접 만들고, 만두도 직접 빚었다. 그리고 김치도 담가 먹었다.



추석을 맞아 음식준비를 하는 모습.

**보통은** 국, 찌개 또는 볶음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을 만들어 먹는다. 다음은 우리가 요리한 음식들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놓았다.

- 국/찌개: 애호박찌개, 감자국, 미역국, 계란국, 부대찌개, 오이냉국
- 각종 반찬: 채소구이, 각종채소볶음, 계란찜, 콩나물무침, 어묵볶음, 양파초절임, 가지볶음
- 요리: 닭볶음탕, 두부조림, 파스타, 팬케이크, 카레, 새우불탕수

**집** 근처 마트에 가보면 냉동식품이 참 많이 있다. 생선도 냉동으로, 고기도 냉동으로 판다. 그리고 종류는 많지 않지만, 시장이나 리어카에서는 채소를 판다. 이 채소들은 모두 직접 텃밭에서 키운 것들이다. 그런 신선한 채소들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도 좋고, 멀리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점심과 저녁을 요리해서 먹기

가 귀찮고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외식을 하거나 '봉쿠스'라는 도시락을 사서 먹기도 했다. 보통 밥 위에 요리 하나를 얹어 먹는다. 그리고 '아이 마나스'라는 소스를 곁들여 먹는다. 우리들이 처음 먹어보고 반한 소스! 고추기름과 잘게 다친 고추를 볶아 만든 소스인데, 모든 도시락에 곁들여 먹는다. 우리가 보았던 또는 먹었던 봉쿠스로는 닭 숯불구이와 같은 닭볶음이지만 소스 서너개로 만든 요리, 계란과 채소로 만든 부침개 같은 요리, 한국의 매운 장조림과 비슷한 요리, 생선구이, 프라이드 치킨 등이 있었다. 또 염소고기 서너 덩이를 꼬치에 꽂아 소스를 발아 구운 '사때'라는 요리도 먹었는데, 특히나 양념 맛이 정말 한국 갈비와 똑같았다. 우리 모두 잘 구워진 염소고기와 갈비양념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염소꼬치와 함께 염소고기의 부속부위와 내장을 넣고 푹 고아 끓인 국도 먹어 보았다. 그리고 바닷가에 놀러 갔을 '박소'라는 음식도 먹었다. '박소'는 면과 국물에 고기 완자와 채소 그리고 양념을 얹어 만든 요리이다. 고기 완자는 어묵과 비슷한 맛이고, 국물은 찬 물에 라면 스프를 탄 듯한 맛이다.



힘들고 밥하기 귀찮을 때 사먹는 봉쿠스♥

**우리가** 티모르에서 먹는 음식들은 인도네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대부분 기름에 볶은 것이어서, 길을 다니다 보면 몸은 평균체형이지만, 배만 나온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다.

**글머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팀은 한국에서 많이 먹어두라는 말을 종종 듣고는 했다. 하지만 막상 동티모르에서 한 달 동안 지내보니, 우리는 다들 너무나 잘 먹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우리들의 요리 레퍼토리가 점점 바닥을 보이고, 또 프로그램 진행에 지쳐 요리할 힘이 나지 않고 있다. 과연 우리들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by 최호진 (Afonso) -



# Afonso, hanoin

(...최호진 생각하다...)



**한 달 동안** 딜리에서 지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느낌은 고마움이다. 내가 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또 그것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고맙다. 팀원들과 서로 짜증을 주고 받는 것도, 센터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나에게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도, 또 그것을 고쳐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자체까지 너무나 고맙다. 비록 내가 고마워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ㅎㅎㅎ

**딜리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느리게 간 것 같지도 않다. 지역NGO인턴십을 했었던 여수에서,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떼뚱어가 이제는 말도 할 수 있고,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쓸 수도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럽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넉달이 더 남았으니 내 떼뚱어 실력을 키워갈 것이다. 현지에 온 처음 첫 달은 적응기간이라는 말이 요즘 자주 떠오른다. 아직 YMCA 센터가 있는 마을에 우리를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아니다. 동티모르YMCA 센터를 알고 싶다. 그래서 센터가 아이들 놀이터가 되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되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 내가 센터를 가고 싶게 만드는 아이들과 청소년,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맙다. 정말 힘들고 지쳐도 센터만 가면 즐겁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겠다고 다짐한다. 앞으로 네 달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재미있겠다!!



# 다해 고민하다

**티모르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첫 티모르는 나에게 매캐한 연기와 살갓이 따가울 정도의 햇볕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매캐한 연기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려는 날씨로 햇볕은 더욱 따갑고, 정전도 된다. 가끔은 덥고 습해지는 기후에 짜증도 나지만 우리만의 비법으로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다니며 꼭 눌러 온 것 같은 기분에 즐겁게 지내고 있다.



**또** 공부를 싫어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떼 때 뚝어(현지어) 공부가 하기 싫지만 아이들과 더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노력하려 한다.

**담당하는** 미술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한정된 재료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 국내 자원활동을 생각해보면 묘하지만 지금 현재가 즐겁고, 행복하다.



**티모르에서** 만나게 된 센터의 스텝들, 아이들 또 커피사업으로 사메에서 오신 아저씨들 모두 수더분한 시골사람들 같다. 걱정했었던 음식도 나름 잘 챙겨먹고 이제는 망고 철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_+



**가끔은** 집이 그리고, 다양한 고민들이 머리 속에 잠시 머물지만 아직 많을 것을 생각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저 내가 있는 환경 속에 적응하고, 조금이라도 더 만족하며 즐겁게 살고 노력한다.





# 여유롭게

**처음으로** 동티모르에 도착했던 때가 기억난다. 비행기문을 나오는 순간 너무나도 햇빛이 따가워 눈을 질끈 감았다. 가을이 막 시작되려 할 무렵 나는 적도를 넘어 가장 뜨거운 곳에 도착했다. 후끈한 공기와 따가운 햇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나의 새로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복잡복잡하고 작은 공항을 빠져 나와 예림 간사님과 총장님을 처음 보았던 때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나갔다. 나에게는 약간의 변화가 찾아왔으며 또한 많은 고민들에 휩싸여 있다.



**긍정적인** 신체적 변화는 몸무게의 변화다. 조금씩이지만 천천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는 날에는 입국 때와는 다른 내가 떠났으면 좋겠다. 살도 많이 빠지고 생각도, 마음도 한층 커져있는 그런 '나'.

**처음에** 나는 내 자신이 완벽하게 동티모르에 젖어 들고 녹아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정말 오만한 생각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져 왔다. 자꾸 누군가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아띠들과 비교하게 된다. 라온 아띠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수많은 자료들 내가 아닌 그들의 경험을 나에게 비추어보며 어느새 부터 인



가 아쉬움과 부러움을 생각하고 있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내 마음의 빗장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걸려 아직까지도 서서히 열리고 있는 중이다. 생각보다 더뎠다. 이제 한 달이 되어서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센터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바라본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어린 친구들의 얼굴이 이제서야 하나 둘씩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제는** 바뀌려고 한다.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비교하는 마음, 조급해하는 마음들에 쫓기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나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5개월의 시간을 부정적인 마음들에 휩싸여 보내고 싶지 않다.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고민도 단순한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훗날 지금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소중히 반짝

반짝 빛나고 정말 즐거웠었노라고 웃을 수 있길 바란다. 무엇이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출국 전 캠프에서 말했던 것처럼 즐거움도, 슬픔도 100% 느끼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돌아갈 것이다.





# 한 달의 마음

한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한국에서 그렇게 궁금했던 동티모르에 실제로 와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어색해진다.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느낄지 짐작도 안 갔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한지 한 달이나 된 것이다. 한국에서와 다르게 매일 밥을 만들어 먹고, 미크롤릿을 타고 센터로 출퇴근을 한다. 학교를 다닐 때, 매일 수업을 듣고 무엇인가에 쫓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것에 해방된 느낌이다. 타의보다는 내 마음과 우리 팀원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만들어 가는 활동들이 좋다.



처음 동티모르 YMCA 센터에 갔을 때 아이들도 날 어색해 하고 나도 아이들이 어색했었다. 아는 말이라고는 인사말 정도밖에 없어서 미소를 주고 받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간단한 대화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다. 폐뚫어 수업도 받고, 아띠들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되면서 점점 바빠지고 있다. 요즘은 ATTI KLASE에서 음악 수

업 진행을 맡게 되어 즐겁게 지내고 있다. 수업 초반에는 어떻게 가르쳐주면 재밌고 더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전혀 몰라서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약간 더 알 것 같다.



음악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었다. 아이들이 리코더를 잘 불게 하려고 하는게 내 목적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아이들에게 잘 하기를 강요했던 것 같다. 그것 때문에 혼자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었다. 하지만 라온아띠는 나 혼자만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힘들어 할 때 팀원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길다.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머물 ANJUCTIL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내가 이렇게 생활 할 수 있게끔 해준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지니면서 활동하고 싶다. 🐟





🦎 다음 호 예고!! 🦎

다음 호 예고!?

TIMOR LESTE



우리 단원이 달라졌어요 - 아프니까 라온아띠다.

**True or Lie ;**

붕쿠스는 다 똑같대!?

'ATTI KLASSE' 위기와 부흥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우리 이대로 괜찮아!?’

과연 그들에게겐 무슨 일이!?

**특집 19대 대선 :**

티모르의 기록을 읽다

그분이 오셨다.

특전 : 김준기 다이어트 다이어리 최초 공개!